

<초록>

오디션 프로그램에 재현된 참가자의 성별화된 이미지

-<미스트롯1>과 <미스터트롯>을 중심으로-

김은영(성균관대)¹⁾·함승경(이화여대)²⁾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TV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는 오디션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트롯 열풍의 진원지라 일컬어지는 트롯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주목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2009년 국내 방송에 처음 등장한 이후 장르와 세대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유행처럼 번졌고, 마침내 트롯과 접목하여 트롯 장르를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올려놓았다.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들처럼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합격과 탈락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청자와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참가자들의 재능과 매력 대결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노래, 춤, 장기, 외모, 개인사, 가족이야기 등 다양한 요소들로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만들고자 한다. 시청률이 중요한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참가자가 가진 차별화 요소들을 극대화하여 시청자들에게 출연자를 캐릭터화하여 특정 이미지로 소비되도록 한다. 제작진들이 쉽게 활용하는 전략은 참가자의 몸을 통해 성적 매력을 부각하는 것으로, 이때 여성은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 실재하는 여성들과 남성의 욕망을 위해 구성된 이미지로서의 여성, 즉 성적인 볼거리로 재현된다.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이미지는 구성과정에서 이미 남성중심적인 '응시'의 성차별적 과정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디어에 재현된 여성은 몸을 통해 성적 매력을 한껏 부각되는 반면, 남성은 힘을 과시하는 자신감 넘치는 주체적인 존재로 다르게 재현된다.

트롯 열풍의 시작이자 기록적인 성공을 거둔 <미스트롯1>과 <미스터트롯>은 방송사, 제작진, 음악 장르, 오디션 방식 등이 동일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만 바뀌었다는 점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몸 이미지의 재현 방식을 비교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는 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몸 이미지와 얼굴 표정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각 프레임의 컬러 히스토그램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큰 프레임을 추출하는 키프레임 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미스트롯1>과 <미스터트롯>의 첫 회차를 분석한다. 분석 단위는 개별 참가자이며, 참가자들이 직접 노래를 부른 무대 공연 부분의 프레임만을 선별하여, 키프레임을 추출한다. 선별된 프레임들은 카메라 워킹에 따른 8개의 샷 사이즈로 구분하고 합산하여, 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프레임들 간 샷 사이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한다. 또한 참가자의 무대 공연 키프레임 데이터에서 표정을 분석할 수 있는 바스트와 클로즈업 샷 프레임을 선별하여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감정분석 API 서비스 아저(AZURE)를 이용, 프레임에 나타난 참가자들의 감정을 6가지로 구분하여 추출한다. 이후 산출된 감정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미스트롯1>과 <미스터트롯> 참가자들의 감정 값에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성별 재현 방식의 차이를 검증하고 기존 주류 미디어가 생산하는 이미지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재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1)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2)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강사